

국내 학회지에 실린 무작위대조시험 연구 논문의 양적 분석 및 질 평가

- 5개 학회지를 대상으로 -

김석원, 남기정, 홍명호, 조경환, 최윤선, 안형식*, 이희영*, 안덕선**, 이영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연구배경: 최근 근거중심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작위대조시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저자들은 국내 주요 학회지에 실린 무작위대조임상시험의 양적 분석과 질적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근거중심의학의 활성화를 위한 의학정보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국내에서 발행되는 5개의 학회지를 선정하여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발행된 253권의 12,760편에 해당하는 원저(original article)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사람 대상의 환자-대조군 연구(Case-Control Study)이면서 무작위 전향적 임상시험(Randomized Prospective clinical trial)을 시행한 논문을 무작위대조시험으로 정의하고 추출하였다. 추출한 논문은 Jadad Quality Assessment Scale를 이용하여 질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평가를 한 후 다시 검토하여 이견을 조정하였다.

결과: 1980년대에서 2000년 사이에 무작위대조시험논문은 115편으로 총 원저 논문 중에서 0.9%를 차지하였다. 1980년대에 총 30편에서 1990년대에 총 74편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질적 분석에서는 1점을 최하로 5점을 최고점으로 하였을 때, 1점과 3점을 얻은 논문이 각각 13.9%였고 2점을 얻은 논문이 83편으로 72.2%으로 나타났다. 4점과 5점을 얻은 논문은 없었다. 1980년대 보다 1990년대에 2점을 얻은 논문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3점을 얻은 논문의 수도 2편에서 14편으로 증가하였다.

결론: 국내에서도 무작위대조시험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내에서도 양질의 무작위대조시험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개 학회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일반화의 제한점으로 있으나,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무작위대조시험에 대한 양적 및 질적 분석임에 그 의의가 있다. 이는 국내 무작위대조군 임상시험 등록 사업 및 향후 메타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심단어: 근거중심의학, 무작위대조시험, 질적 평가